

[Best IPO Legal Advisor]

김 · 장도 긴장시키는 IPO자문 '킹' 세종

기업공개(IPO) 법률시장에서는 김 · 장도 세종 앞에서 긴장한다. 세종은 타임 테이블이 겹치는 빅딜을 동시에 수임할 수 있을 정도로 두터운 인력풀을 자랑한다. 전담팀 운영, IB 네트워크 등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압도적인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공개(IPO) 법률 시장의 절대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세종이 달성한 압도적인 실적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세종은 20여 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IPO 전담 법률자문팀을 운영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IPO 법률자문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자문팀은 송웅순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김상만 변호사와 송종호 변호사, 이상현 변호사, 신선경 변호사, 서태용 변호사 등 총 6명의 파트너급 변호사가 포진해있다.

일정 기간 타임 테이블이 겹치는 빅딜을 동시에 수임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차별화된 경쟁력은 곧 실적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2011년 △현대위아와 △두산엔진 △골드존 △사파이어테크놀로지 등 총 13건의 IPO 법률 자문 업무를 맡으며 경쟁사를 압도하

는 실적을 기록했다. 2위 김·장법률사무소(3건)와 격차가 무려 10건에 달한다.

세종의 독주는 비단 2011년만의 일은 아니다. 2010년에는 두터운 인력풀을 활용해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만도 등 빅3 IPO 거래의 법률 자문 업무를 독점하며 절대강자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이 밖에 △동양생명과 △진로 △SK C&C 등 굵직한 랜드마크 딜 역시 모두 세종의 손을 거쳤다.

국내 대형 투자은행(IB)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도 세종의 강점이다. 세종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 톱 티어(Top-tier) IPO 플레이어와 상장 법률자문 전담 계약을 체결하며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해두고 있다. 실제 올해 달성한 13건의 실적 가운데 10건은 이들 전략적 파트너들이 주관 업무를 맡은 거래였다.

또 세종은 국내외 동시 상장 및 국내외 트랜치(Tranche) 방식 상장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

를 듣고 있다. 실제 세종은 2004년 LG필립스 LCD 한국-뉴욕 동시상장을 비롯해 금호타이어의 한국-런던 동시 상장을 자문했고, 2007년에는 국내 최초로 해외 트랜치 방식을 활용해 삼성카드 상장을 도왔다.

로펌의 최대 자산은 트랙레코드(과거 실적)다. 풍부한 트랙레코드는 새로운 딜 수입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적이 많은 하우스에 일감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확실한 업계 1위 입지를 다진 세종은 앞으로도 트랙레코드 선순환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창현 sogotit@mt.co.kr

회 사 소 개

SHIN&KIM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은 1981년에 설립된 이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역사를 함께 하며 선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300명이 넘는 한국 및 외국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 기업 인수합병(M&A), 공정거래, 송무, 국제중재, 국제통상 관세, 방송통신, 부동산, 지적재산권, 보험, 세무 회계, 등 사회 전 영역의 분쟁해결과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 대표처를 두고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로펌 최초로 독일 뮌헨에 정식 유럽대표법인을 설립해 유럽 기업들의 국내 진출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 유럽 내 국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지역, 러시아 등 CIS 지역에 대한 프랙티스 그룹(Practice Group)을 구축했다.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등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법률 자문 역량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